

금융산업발전과 인력수급 방안*

이 기 환**

《目 次》

- | | |
|----------------------------|--------------------------|
| I. 서론 | IV. 금융산업 종사자 및 신규채용 현황 |
| II. 금융과 경제발전 | V. 금융산업의 소요 인력 추정과 육성 방향 |
| III.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과 자본시장통합법 | VI. 결 론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상태로 접어들면서 그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임금과 지가의 급상승으로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국내 경제 성장은 그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쇠퇴한 영국은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 소득을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진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경쟁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

* 이 논고는 2007년 11월 29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와 해양산업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원고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출범으로 금융산업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앞으로 대학에서 길러내는 인재의 채용과 활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최근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추정도 시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 논고의 구성을 보면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금융과 경제발전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제IV장에서는 금융종사자 및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제V장은 금융산업의 소요인력에 대한 추정과 더불어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제VI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II. 금융과 경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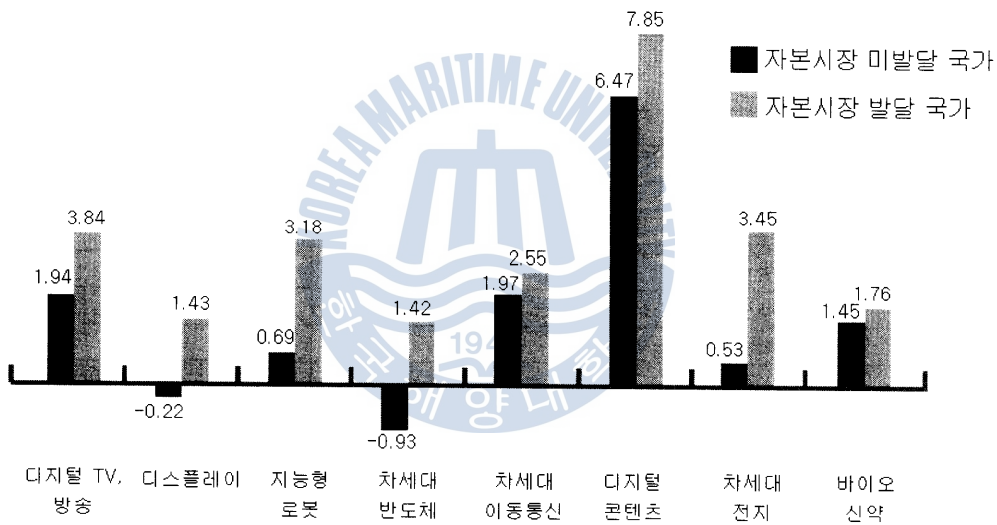
금융제도 특히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가 아니면 은행시장 중심의 금융제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영향을 받음을 밝힌 학자도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영위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후의 부흥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이 순조로워 이 시기엔 많은 사람들이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 대 후반 미국에서 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신경제가 대두면서 첨단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던 나스닥(NASDAQ)시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금융시스템이 첨단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Black and Gilson(1998)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그들은 자본시장 중심 국가와 은행시장 중심의 국가를 대상으로 어느 국가에서 첨단산업이 더 발달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인 미국이 은행 중심의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첨단기업이 더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의 자본이 투자되고 회수될 수 있는 증권시장 특히 나스닥(NASDAQ)시장과 같은 첨단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은 자본시장 발달과 차세대 성장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첨단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Black and Gilson(199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그 나라의 산업발전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차세대 성장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차이



출처 : 2004년 기준 OECD 산업 분류에 근거한 연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매일경제신문사(2007)에서 재인용)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32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여 세계 20위권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육성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이처럼 금융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금융업이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 신보성 외(2005)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사(2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금융산업이 창출한 총부가가치는 53조 4,000억원으로 전산업의 부가가치의 7%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1인당 부가가치액을 보면 6,200만원으로 제조업에 비해 7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 특히 <표 1>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업은 70%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은행의 부가가치율이 80.1%로 금융업의 71.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산업별 부가가치율¹⁾ 추이

(%)

	1995년	2000년	2003년	일본(2000년)
제 조 업	31.0	27.4	28.5	33.0
서 비 스	65.2	62.0	62.0	64.6
금 용 업	71.1	68.8	71.0	64.9
은행	71.4	74.2	80.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71.6	64.0	62.0	
기타 금융중개기관		66.3	69.5	
생명보험	75.5	64.0	69.9	
손해보험	62.7	47.2	50.6	
금융·보험관련서비스	68.6	75.3	72.2	
전 산 업	44.7	43.0	44.1	52.2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국내총산출액)×100 ⇒ 100 - 중간투입률

자료: 신현열·김보성(2007).

<표 2>는 금융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5년 이후 0.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금융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금융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신현열·김보성(200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4)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특정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최종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산업이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와 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표 2>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1995년	2000년	2003년	일본(2000년)
제조업	0.686	0.627	0.643	0.869
서비스	0.908	0.886	0.894	0.966
금융업	0.955	0.949	0.950	0.979
은행	0.952	0.952	0.96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963	0.946	0.950	
기타 금융중개기관		0.950	0.951	
생명보험	0.962	0.951	0.956	
손해보험	0.927	0.890	0.875	
금융·보험관련서비스	0.962	0.974	0.970	
전 산업	0.746	0.714	0.741	0.905

자료: 신현렬·김보성(2007).

한편 <표 3>은 금융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05년 동안 8.2%인 것으로 나타나, 전기전자(27.8%), 통신운수(13.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의 금융산업의 GDP에 대한 기여율은 1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화되면 될 수록 금융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여력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금융과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는 Goldsmith(1969), McKinnon(1973), Shaw(1973) 등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중 Goldsmith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에 의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금융연관비율의 개념도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의 추이를 보면 1980년도에 3.1에서 2005년 9월에는 6.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이창훈, 2005), 금융업이 그동안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국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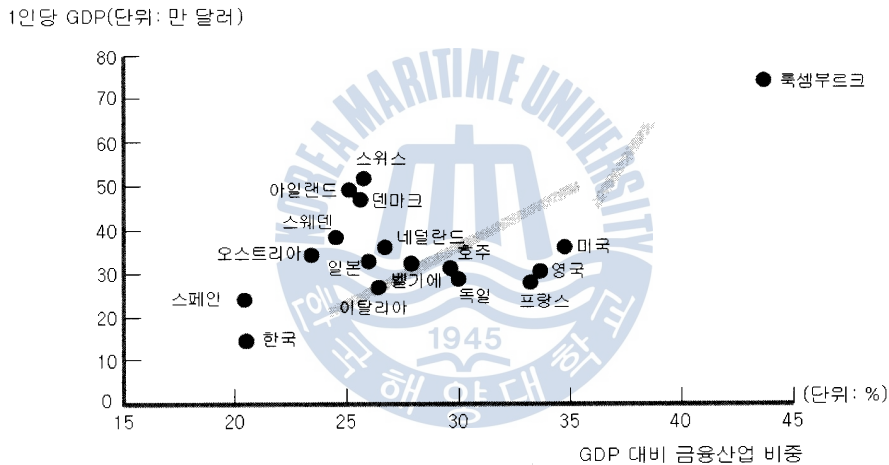
(2000-2005년 중 평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GDP 성장 기여율(%)	8.23	11.11	10.33	15.47
GDP 성장률(%)	5.14	2.62	1.42	2.70
금융산업 성장률(%)	5.73	3.91	2.42	5.63

자료: OECD (한국은행(2007)에서 재인용).

[그림 2]는 국가경쟁력과 금융부문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총생산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국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육성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하려는 금융산업의 발전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비싼 노동력과 토지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는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국가경쟁력과 금융부문 기여도



자료: 매일경제신문(2007).

그리고 <표 4>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취업계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2003년도 금융업의 취업유발계수⁵⁾는 11.9로 서비스전체의 20.5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출액이 10억원 증가할 경우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2003년의 취업계수도 8.0으로 199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금융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줄어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한편으로는 금융의 전자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산업에서의 성력화가 나타났기

5) 취업유발계수는 해당부분의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해당부문과 여타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를 말한다.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인터넷뱅킹이 2000년 말 10.7%에서 2006년말 41.5%로 보급되면서 은행창구 업무가 동기간 동안 33.3%에서 22.7%로 줄어든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표 4>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취업계수

(단위: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취업계수 ¹⁾		
	1995년	2000년	2003년	1995년	2000년	2003년
제 조 업	22.1	14.9	12.1	8.5	5.1	4.2
전력·가스·수도	8.2	5.4	4.4	3.2	2.2	1.8
건 설 업	19.9	19.5	18.7	10.6	11.7	11.6
서 비 스	30.9	21.9	20.5	23.0	16.4	15.2
금 용 업	21.0	13.1	11.9	15.1	9.1	8.0
은행 및 비은행	-	-	9.3	-	-	5.8
보 험	-	-	19.6	-	-	13.7
금융·보험관련서비스	-	-	10.5	-	-	7.2
전 산 업	26.5	19.4	16.9	15.9	11.8	10.4

주: 1) 취업자수/2003년 가격기준 불변산출액(10억원)

자료: 신현렬·김보성(2007).

이상에서 금융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금융시스템의 선택이 한 나라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금융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성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II.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과 자본시장통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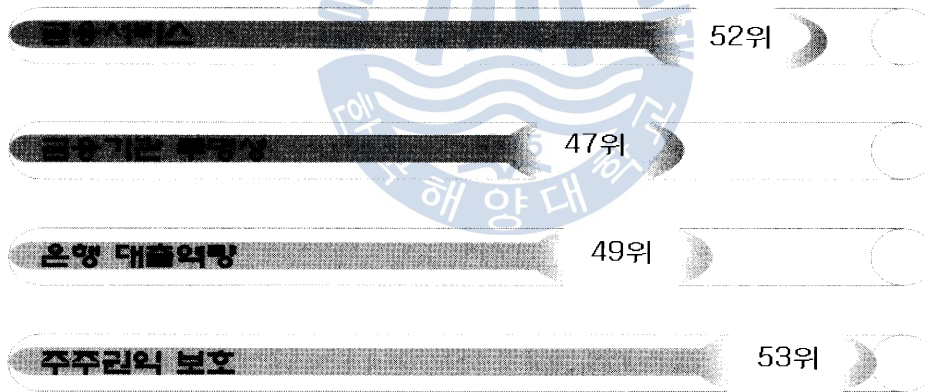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어 은행은 대형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률의 통합으로 위험자산의 투자와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현황

과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잠재력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 11~12위권으로 진입하고, 조선업 및 반도체 산업이 세계 수위로 성장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낙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전문가의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업무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림 3]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



자료: IMD 61개국 국가경쟁력 조사(2006) (매일경제신문사(2007) 재인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금융업이 현재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표 5>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금융발전지수는 15위이나, 인터넷 가입자 수, 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금융발전 잠재력지수는 6위로 보고되고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금융발전 현황 및 잠재력

금융발전 현황지수(등급)

순위	국가	Y1	Y2	Y3	등수 평균
1	영국	2	1	1	1.3
2	미국	1	2	2	1.7
3	호주	5	5	5	5.0
4	덴마크	11	4	4	6.3
5	스웨덴	15	3	3	6.3
6	독일	4	9	9	7.3
7	네덜란드	7	8	8	7.7
8	스위스	10	7	7	8.0
9	아일랜드	12	6	6	8.0
10	프랑스	3	12	12	9.0
11	일본	9	11	11	10.3
12	벨기에	6	14	14	11.3
13	스페인	14	10	10	11.3
14	이탈리아	8	15	15	12.7
15	한국	15	13	13	13.7

금융발전 잠재성지수(등급)

순위	국가	Z1	Z2	Z3	Z4	Z5	Z6	Z7	등수 평균
1	네덜란드	6	6	5	2	6	3	5	4.71
2	스위스	10	4	6	6	1	5	1	4.71
3	덴마크	7	9	11	8	3	1	2	5.86
4	미국	4	1	10	15	4	4	8	6.57
5	스웨덴	1	15	13	5	5	6	6	7.29
6	한국	2	2	1	4	15	14	15	7.57
7	아일랜드	15	3	12	3	2	7	11	7.57
8	독일	11	11	3	7	12	8	4	8.00
9	영국	5	8	7	12	7	10	9	8.29
10	벨기에	13	13	4	1	9	9	12	8.71
11	프랑스	12	5	8	9	10	11	7	8.86
12	호주	3	10	15	13	11	2	10	9.14
13	일본	8	7	2	14	8	13	13	9.29
14	이탈리아	9	12	9	10	13	15	14	11.71
15	스페인	14	14	14	11	14	12	3	11.71

- 참고 : Y1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비중
Y2 : 100대 금융회사 시가총액비중
Y3 : 자본시장 접근성 지수
(Capital Market Access Index)/100

- 참고 : Z1 : 인터넷 가입자수
Z2 : GMAT신청자수 * 점수 / 인구
Z3 : 1,000km인구
Z4 : 무역의존도
Z5 : 1인당 GDP
Z6 : 투명성순위 : Financial Institutions' Transparency
Z7 : 국가신용등급

자료: 매일경제신문사(2007).

2. 금융산업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며, 증권사 등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결과 1997년 금융회사수가 2,153개사에 달했으나, 2007년 6월 현재는 1,366개로 조사되고 있어 약 10여 년만에 금융기관의 수가 약 36%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줄어든 금융기관의 현황을 보면,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 등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산운용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50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산운용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펀드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진 결과로 보여진다.

<표 6> 금융권역별 회사수

(단위: 개)

연월말	1997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6
은행 ¹⁾	26	22	19	19	19	18	18
종금사	30	10	3	2	2	2	2
상호저축은행	231	147	116	113	111	110	109
신협	1,666	1,317	1,233	1,066	1,051	1,024	1,015
여신전문금융회사 ²⁾	68	53	57	45	47	50	53
신용카드사	8	7	9	6	6	6	6
생명보험회사	33	23	23	23	23	22	22
손해보험회사	17	17	23	27	28	29	27
증권회사	58	64	60	57	54	54	54
선물회사	-	14	14	14	14	14	14
자산운용사	24	40	44	47	46	49	50
합계	2,153	1,707	1,592	1,413	1,395	1,372	1,366

주: 1) 국내 일반 및 특수은행 기준(특수은행은 99년부터 포함)

2)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9

<표 7>은 금융기관별 총자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2006년 7월 현재 총자산 규모는 2,132조원 8,84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의 943조 7,654억원에 비해 126%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금융기관의 총자산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험사, 증권사 등의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금융권역별 총자산³⁾

(단위: 10억원)

연월말	1997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6
은행 ¹⁾	606,552.90	829,337.90	1,043,123.70	1,141,651.80	1,232,070.30	1,394,166.10	1,500,164.00
종금사	77,850.10	21,272.90	3,090.90	795.5	1,051.10	1,197.00	1,416.40
상호저축은행	36,121.20	21,351.10	25,460.80	35,929.40	41,660.20	50,807.10	53,264.80
신협	19,271.90	20,468.90	19,673.50	22,186.30	23,961.00	26,289.50	27,122.70
여신전문 금융회사 ²⁾	68,255.30	62,350.50	101,703.70	53,912.90	57,958.50	67,827.20	75,820.80
신용 카드사	12,118.10	35,411.20	69,122.60	29,299.20	29,487.00	31,927.70	33,139.90
생명보험 회사	92,387.00	120,509.00	163,295.80	209,907.90	234,766.20	265,780.80	282,718.90
손해보험	19,458.80	29,030.90	35,253.50	42,750.00	49,018.60	55,798.80	59,588.40

회사							
증권회사	23,868.20	52,170.70	50,475.90	52,360.70	73,059.80	92,851.60	127,869.10
선물회사	-	526.1	526	914.5	1,176.80	1,327.00	1,756.10
자산 운용사	-	1,273.40	1,529.60	1,635.80	1,622.40	2,062.20	2,163.00
합계	943,765.40	1,158,291.40	1,444,133.40	1,562,044.80	1,716,344.90	1,958,107.30	2,131,884.20

주: 1) 국내 일반 및 즉수은행 기준 (특수은행은 99년부터 포함)
 2)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3) 연월말 기준으로 권역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9

금융권별 수신규모는 <표 8>에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권이 810조에 이르고 있어 총수신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사가 258조원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보사는 206조원으로 약 1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의 수신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들의 금융자산의 운용을 증권 등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8> 금융권역별 수신

(단위: 10억원)

연 월말	은행 ¹⁾	종금사 ²⁾	신탁 ³⁾	상호 저축 은행 ⁴⁾	생명 보험 회사 ⁵⁾	손해 보험 회사 ⁶⁾	증권 회사 ⁷⁾	선물 회사 ⁸⁾	자산 운용사 ⁹⁾	합계
1997	426,104.1	3,420.2	14,841.3	27,140.0	82,544.5	17,069.4	3,302.8	-	-	574,422.2
2000	518,696.1	12,265.4	17,042.2	18,803.4	123,838.8	22,746.8	14,407.1	28.1	-	727,827.9
2002	631,439.8	2,217.0	16,229.6	22,556.0	143,453.0	25,475.6	22,110.5	22.9	-	863,504.2
2004	663,204.1	504.7	18,882.4	32,640.7	179,857.6	31,256.5	26,032.8	612.9	186,989.4	1,139,981.1
2005	710,518.2	735.0	20,488.2	37,283.8	202,489.0	35,330.2	40,824.7	834.9	204,332.9	1,252,836.9
2006	779,723.7	740.0	22,584.9	44,512.6	231,435.8	39,031.4	56,173.7	922.5	234,605.5	1,409,730.1
2007.6	810,534.2	826.3	23,275.9	46,531.8	206,008.6	44,397.2	74,706.0	1,360.1	258,297.8	1,465,937.9

주: 1) 예수부채(은행계정)+금전신탁(신탁계정)+발행어음표지어음CMA수탁금(종금계정), 국내일반 및 특수은행 기준(특수은행은 99년부터 포함)
 2) 예수금 3) 예수금+적금 4) 예수금 5) 책임준비금+계약자 적립금(특별계정) 6) 보험계약준비금+계약자 적립금(특별계정)
 7) 환매조건부채권매도+고객예수금+매도신종증권+발행어음CMA수탁금(종금계정)+매도옵션 8) 예수금, 매도옵션 9) 투자신탁(설정고)+투자회사(자본금)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9.

3.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시장의 변화

정부는 각종 펀드 등의 출현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금융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통합에 이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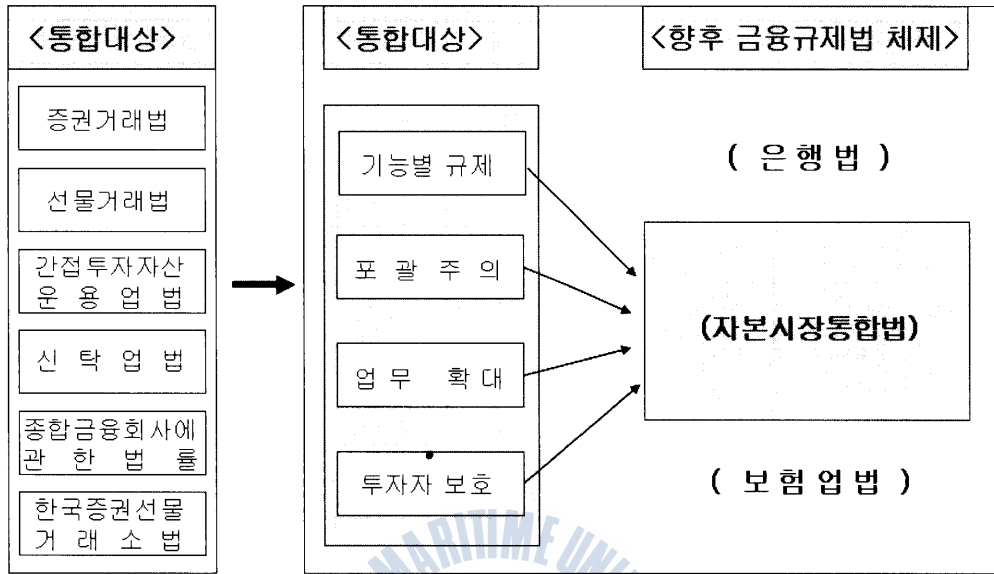
<표 9>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통합현상

구분	통합대상	통합연도	근거법률	통합내용
1 단계	금융감독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설립> - 통합대상 : 4개 금융감독기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2 단계	금융시장	2005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설립> - 통합대상 : 3개 시장 개설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3 단계	금융법제 및 자율규제단체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관련법률 통합> - 통합대상 : 6개 자본시장관련 법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금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금융투자업협회 설립> - 통합대상 : 3개업종별 자율규제단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자료: 업세용(2007).

2007년에 제정된 자통법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금융관련 규제법의 체계가 은행법, 자통법, 보험법 등 3개의 영역으로 정리된 셈이다. 이처럼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혁신주도형 기업의 육성에 도움을 주며 또한 위험관리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자통법의 출범으로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등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및 운용과 관련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원칙 및 통합범위



자료: 업세용(2007).

IV. 금융산업 종사자 및 신규채용 현황

1. 금융권별 종사자 분석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금융업의 종사자가 50만에서 70만에 이르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기준하면 2007년 6월 현재 275,668명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10> 참조). 이 중 은행종사자가 약 절반에 달하는 134,495명이며, 다음으로는 증권사 32,578명, 생보사 26,848명 등의 순으로 종사자가 많다. 최근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금융권은 자산운용사로 2002년에 비해 73%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종금사는 90%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표 10> 금융권역별 임직원수

(단위: 명)

연월말	1997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6
은행	128,503	119,950	118,650	125,480	124,755	130,990	134,495
종금사	1,510	588	258	146	145	159	142
상호저축은행	9,975	5,781	6,607	6,060	6,418	7,079	7,233
신협	30,122	23,433	19,834	18,716	18,448	18,284	18,304
여신전문금융회사	-	18,178	41,708	24,028	24,279	26,032	26,662
신용카드사	-	14,812	25,397	16,917	16,310	16,190	16,713
생명보험회사 ³⁾	51,962	33,118	26,585	26,015	25,807	25,604	26,848
손해보험회사	31,342	23,608	20,768	21,755	25,648	26,097	25,982
증권회사	25,515	33,858	36,273	30,703	29,817	31,666	32,578
선물회사	-	584	542	629	655	647	664
자산운용사	-	-	1,591	* 2,025	2,206	2,569	2,757
합계	278,929	259,128	272,816	255,557	258,178	270,127	275,668

주: 3) 보험설계사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9

2. 2006년 금융업 신규채용 분석

<표 11>은 2006년 금융권별 신규채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총 19,051명이 금융권으로 새로이 취업하였다. 이들 중 은행 9,071명, 보험 4,951명, 증권/선물 4,279명, 자산운용 75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1> 2006년 업권별 채용인원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19,051	100.0
은행	9,071	47.6
보험	4,951	26.0
자산운용	750	3.9
증권/선물	4,279	22.5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2007)

19,051명의 신규채용 중 처음으로 금융권에 취업한 신입 채용은 11,118명으로 나타나 전체 채용인원 중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력직으로 취업한 비중은 41.6%인 7,9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2>참조).

<표 12> 업권별 신입/경력직 채용 비중

(단위: 명, %)

구분	계	신입		경력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19,051	11,118	58.4	7,933	41.6
은행	9,071	6,766	74.6	2,305	25.4
보험	4,951	2,493	50.4	2,458	49.6
자산운용	750	112	14.9	638	85.1
증권/선물	4,279	1,747	40.8	2,532	59.2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2007)

2006년도에 금융권에 취업한 19,051명 중 51.3%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나머지 48.7%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표 13>은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곳은 은행권이며 다음으로는 증권/선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는 정규직 채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3> 업권별 고용형태별 채용 인원

(단위: 명, %)

구분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19,051	9,796	51.3	9,255	48.7
은행	9,071	3,746	41.3	5,325	58.7
보험	4,951	3,103	62.7	1,848	37.3
자산운용	750	696	92.8	54	7.2
증권/선물	4,279	2,221	51.9	2,058	48.1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2007)

2006년 신규채용 19,051명 중 학력별 현황을 보면 대졸자가 12,313명으로 65%를 점하고 전문대, 고졸, 대학원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 이상이 71%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표 14>참조).

<표 14> 직무별·학력별 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대졸이상 비중
합계	19,051	2,312	3,187	12,313	1,239	71.1
경영지원	5,782	701	1,362	3,199	520	64.3
자금조달	753	101	162	449	41	65.1
창구영업	7,711	1,242	1,262	5,089	118	67.5
일반영업	2,789	231	359	2,031	168	78.8
투자직무	2,016	37	42	1,545	392	96.1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2007)

<표 15>는 금융권에 따라 전공별 채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경계열이 50.6%를 점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는 27.8%, 법학계열은 4.8%, 전산 4.9%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상경계열의 전공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업권별·전공별 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상경계열	법학계열	인문사회	전산	기타
전체	인원	10,801	5,469	523	2,998	527	1,284
	비중	100.0	50.6	4.8	27.8	4.9	11.9
은행*	인원	4,985	2,196	223	1,664	240	662
	비중	100.0	44.1	4.5	33.4	4.8	13.3
보험	인원	2,360	1,022	152	718	133	335
	비중	100.0	43.3	6.4	30.4	5.6	14.2
자산 운용	인원	510	342	21	86	15	46
	비중	100.0	67.1	4.1	16.9	2.9	9.0
증권/선물	인원	2,946	1,909	127	530	139	241
	비중	100.0	64.8	4.3	18.0	4.7	8.2

주: * 전공별 채용현황 통계는 외국계 은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2007).

V. 금융산업의 소요 인력 추정과 육성 방향

1. 금융산업 종사자 수 추정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연 18%에서 14% 정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순금융성장률은 연평균 8.33%로 조사되고 있다.⁶⁾ 2007년 이후 금융산업에서 소요되는 인력의 추정을 통계청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종사자의 추정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관련 통계자료이며, 추정에 활용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이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추정된 2020년까지의 금융종사자 수를 보면, 2007년 75만 명인 종사자가 2020년에는 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16>참조). 여기서 활용된 모형이 갖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엇보다도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종사자 수를 추계해 보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정교한 모형의 개발과 더불어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모형: $FW_t = 1218.874 + 70.418\ln GDP_t + 430.05\ln\left(\frac{FW_{t-1}}{EP_{t-1}}\right)$
- $R^2 = 0,828$, D-W = 2.455

여기에서,

- FW_t = t년도 금융업 종사자 (천명)
- GDP_t = t년도 GDP (10억원)
- EP_t = t-1년도 경제활동가능 추계인구 (20~54세)

(주: GDP는 2000년 불변가격 데이터를 평활하였음.)

6)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사(2007)를 참조 바랍니다.

<표 16> 금융 종사자 추정

연도	금융산업종사자 추정(명)
2007	750,000
2010	770,000
2015	825,000
2020	891,000

2. 해운(선박)금융과 인력수요

2003년도부터 도입된 선박펀드제도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선박건조 자금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소요되는 인력도 다소 요구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운용회사가 4개에 이르고 있다(<표 17>참조). 이러한 운용회사의 설립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대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펀드의 활성화로 전문인력의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7> 선박운용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현황

운용회사	설립일	자본금	선박투자회사수
한국선박운용(주)	'03.3	85억원	28
KSF 선박금융(주)	'04.2	84.7억원	21
세계로선박금융(주)	'05.3	70억원	7
서울선박운용	'05.4	70억원	1

자료: 선박운용회사 및 해양수산부

선박운용회사의 주도로 조성된 선박펀드는 57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펀드를 통해 조달된 선박투자규모는 14조원에 이르고 있다(<표 18>참조). 이 자금의 조달내역을 보면 주주들의 출자를 통한 조달규모는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차입금 4,217억원, 선지금융선료 및 선사부담금 6,009억원이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로 신조선의 건조와 중고선의 확보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상선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표 18>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단위: 억원)

구분	선박투자회사수	자본금	차입금	기타 ^o	조달자금계
2004	17	201.95	719.64	87.83	1,009.42
2005	17	445.28	1,207.08	175.90	2,539.51
2006	13	2,283.87	2,237.30	5,745.71	10,274.55
2007	10	24.30	52.70	-	320.87
합계	57	2,955.40	4,216.72	6,009.44	14,144.35

^o 선지금융선료 및 선사 자기부담금

* 한국선박운용(주)의 동북아 31~34호와 세계선박금융(주)의 바다로 47호에 관한 자금조달방법은 포함되지 않아 자금원별 조달규모와 총액이 상이 할 수도 있음.

자료: 선박운용회사 및 해양수산부

한편 <표 19>에 의하면 2005년의 세계선박금융시장은 561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캐피탈회사 등을 통해 약 15억 달러가 조달되었다. 이처럼 선박금융시장의 규모가 증대되면서 이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9> 선박금융 소요 자금 조달 현황 (2005년 기준)

비고	국내 주요 선박금융사	세계 선박금융 소요 자금
	산업은행(6억 5천만 달러) 수출입은행(4억 1백만 달러) 신한캐피탈(2억 1천만 달러) 산은캐피탈(2억 2천만 달러)	신조선(441억 달러) 중고선매매(120억 달러)
소계	14억 9천만 달러 (비중 : 2.7%)	561억 달러

자료: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2006.2)』를 이용하여 재편집(2005년 기준 연평균 대미 환율: 1024.3원)

3. 부산의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 (SWOT 분석)

1999년 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설되면서 부산의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되었으나, 부산이 파생상품시장을 갖게 된 것은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통합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본사 기능과 선물거래 본부가 부산에 위치하면서 부산은 파생상품중심의 지역특화금융센터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된 것으로 또한 논의되고 있다. 아래의 <표 20>에서 부산의 금융산업 발전 여건을 분석한 SWOT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은 인구 800만 명의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적 우위 그리고 상해와 동경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신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 등은 부산에서 금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시로 자산관리공사 등 4개의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부산의 금융산업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권 중심의 금융산업 발전 추진 경향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위인 부산의 금융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 금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부산의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에서 부산의 금융업에 대한 고찰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되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표 20> 부산의 금융산업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X 본사가 위치,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화금융센터의 가능성 • 경제자유구역, 물류 금융의 중심기능 • PUSAN NEWPORT CO. LTD. 21세기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지 기능 • 인구 800만 동남 경제권의 중심도시 • 중국의 상해, 일본의 도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리더십 부재 • 지역경제의 성장여건 부족 및 산업인개발 부진 •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WILLINGNESS) • 금융전문인력 양생(MANPOWER) • 생활환경 국제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발전 정책 (4개 국공립기관 부산 이전 확정) • APEC 2005에 따른 부산의 국제적인 산업도 제고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비전에 대한 정책의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집중 실로 금융시장 구조 •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 지역제조업 및 고급 전문인력 역외유출 • Two-Port 정책으로 항만기능 위축

<표 21>은 부산 금융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4년 현재 부산의 GRDP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이며, 부산의 GR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6%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사업체수는 2,900개이며, 종사자수는 44,000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지표는 그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부산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육성도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21> 전국 주요 7대 도시의 금융산업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2004년 기준)

(단위: 억원, 천개, 천명, %)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지역내 총생산	생산액	37,264	275,163	22,511	21,330	13,755	15,016	8,535	592,936
		(6.3)	(46.4)	(3.8)	(3.6)	(2.3)	(2.5)	(1.4)	
	비중 순위	2	1	3	4	6	5	7	
		금융산업	8.16	15.11	8.86	5.78	8.18	8.07	2.21
	비중 순위	4	1	2	6	3	5	7	
사업 체수	업체수	29	83	18	14	12	10	06	33.9
		(8.6)	(24.4)	(5.2)	(4.0)	(3.4)	(2.9)	(1.9)	
	비중 순위	2	1	3	4	5	6	7	
		금융산업	1.09	1.12	0.97	0.87	1.21	1.11	1.01
	비중 순위	4	2	6	7	1	3	5	
종사 자수	인원수	44	202	27	23	20	17	11	583
		(7.5)	(34.7)	(4.7)	(3.9)	(3.4)	(2.9)	(1.8)	
	비중 순위	2	1	3	4	5	6	7	
		금융산업	3.82	5.42	3.82	3.18	4.52	4.19	2.82
	비중 순위	4	1	4	6	2	3	7	

주: ()내는 전국비중(%)

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2006.1

4. 금융인력 양성 방향

지금까지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엔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금융의 현황 및 최근 금융권의 인력채용 그리고 금융인력 수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산의 금융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금융 기관의 이전, 증권선물거래소

를 축으로 한 파생금융시장의 육성방안 등은 부산에서의 금융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경제의 성장을 높여 1인당 국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금융산업의 육성이 긴요함을 역설하였고, 2020년경에는 금융종사자수가 8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의 금융산업육성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확대에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연수원이 그동안 금융실무교육을 담당하여 왔으나, 점차 금융업의 고도화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의 금융대학원 신설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영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금융전문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전문인력의 육성이 매우 필요함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인력이 86.7%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아시아권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관리인력이 20%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5배 내지 6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주요국의 금융회사 인력 구성

구분	한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관리자	4.4%	12.4%	19.2%	17.8%
전문인력	8.9	16.4	43.8	51.3
보조인력	86.7	71.2	37.0	30.8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05).

이처럼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금융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다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은 민간조직으로 FSSC(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을 조직하여 금융인증프로그램, 금융서비스 제공의 역량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

고 있다. 호주는 영국과는 달리 정부조직 형태로 AFSTA(Australian Financial Service Trading Alliance)를 조직하여 금융산업의 업역별 전문과정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금융인력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정책당국과 민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인력의 양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영국 및 호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도

구분	영국: FSSC ¹	호주:AXISS의 AFSTA ²
형식	금융회사에 설립된 금융서비스 관련 역량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인베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분야 하부 조직인 AXISS의 기구로 금융연수기관 연합체
운영	민간조직 · 금융기관 종사가 간 협력체 운영	정부조직
활동	· 금융교육제공자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 금융회사 종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산업별 역량 및 성과지표 마련 및 관리 · 금융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자격시험 관리와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인증	· 금융회사와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 업역별 전문과정 프로그램 · 금융전문인력 및 연수에 관한 토론회 개최 · 금융자격제도의 관리 ·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출범	2004	2000

주: 1. 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
2. Australian Financial Service Trading Alliance

자료: 매일경제신문사(2007).

둘째, 최근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책당국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 특히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가 심화됨을 간파하고 제정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출범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 비중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증권인수, M&A 등의 업무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은행업무(IB)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파생상품의 거래 증대와 더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중요

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 외국투자자에게 경영권이 이양되면서 해외전문가가 관련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로 영입되어 경영을 맡기도 하여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필요 인재를 국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단시일 내에 국제금융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울 경우 글로벌 인재의 활용으로 전문지식의 전수를 통한 금융기관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근 선박펀드의 활성화로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활황을 이루면서 이들 수주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틈새시장인 해운/선박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우리 대학이 관심을 갖고 육성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부산의 금융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 본 토의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대학, 동의대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인력양성 누리사업은 앞으로 부산의 금융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 유치와 더불어 4개 공공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으로 앞으로 부산권에서의 금융인력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남경제권역에서 요구되는 금융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동남권 소재 대학이 연합하여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권별 소용인력의 추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금융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산업의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제공한 것으로 최근 자료에서 보고되고 있다. 금융기관종사자의 6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신규채용된 19,000명의 인력 중에서는 70% 이상이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대학에서 길러내는 인력이 금융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사자의 대부분이 보조인력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전문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러서는 약 890,000명이 금융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금융산업인력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금융인력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분야의 인력육성이 필요한 금융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학 학부 수준에서의 배출되는 인력은 그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정부는 금융전문대학원의 개설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낙후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김동원·김기화(2003),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다산출판사.
- 엄세용(2007),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 증권선물, 9월호, 증권선물거래 소
- 신보성·빈기범·박상용(2005),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은행의 균형 발전 필요성』, 한국증권연구원.
- 신현열·김보성(2007),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경기여도 변화”, 한국은행.
- 이창훈(2005),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조사연구, 겨울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07.9), 『금융통계월보』.
- 매일경제신문사(2007), 『Money Working Korea』.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2007), “2006년 금융인력 채용 현황.”
- 한국은행(2007),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 Black, B. and R. Gilson(1998), “Venture Capital and Structure of Capital Market: Bank versus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7, pp.243-277.
- Goldsmith, R.(1969),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 McKinnon, R.(1973),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 Shaw, E.(1973),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